

## 2018년 모의논술고사

# 인문계열



성 명	
전 형	
수험번호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패스트푸드점들은 음식이 나오는 속도를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실제로 레이 크록의 첫 번째 매장 이름은 ‘맥도날드의 특급 서비스 드라이브인’이었다. 한때 맥도날드는 50초 안에 햄버거, 셰이크, 감자튀김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맥도날드가 급격히 성장하던 1959년에는 110초 동안 36개의 햄버거를 낸 기록도 있다.

다른 여러 패스트푸드점들도 맥도날드를 따라 속도를 향한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버거킹은 종업원들에게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지 3분이 지나기 전 음식을 내야 한다고 교육한다. 드라이브스루 창구는 고객이 패스트푸드점을 거쳐 가는 시간을 급격히 단축한다. 속도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피자 배달 사업에서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도미노피자의 슬로건은 “빨리빨리!”이며, 도미노의 목표는 8분 안에 배달원이 출발하는 것이다. 빨리 배달을 나서는 것뿐 아니라 빨리 이동하여 피자가 뜨거운 상태로 도착하게 하는 것도 판매량을 좌우한다. 요즘은 특수 단열 포장도 도입되어 피자 온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 그러나 신속한 배달을 강조하다 보니 젊은 배달원들이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교통사고로 내몰려 때로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이에 대한 비난도 일었다. (중략)

맥도날드화된 시스템에서는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맥도날드 노동자는 이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으며, 압박감은 업무 수행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예컨대 빅맥을 주문한 고객에게 피시버거를 내거나, 햄버거에 깜박 잊고 피클을 넣지 않을 수 있다. 그 여파는 고객에게 질 낮은 서비스나 제품이 제공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속도를 강조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되면, 낮은 품질이나 그로 인한 고객의 불만 때문에 질책을 당하거나 해고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도 위협이 된다.

-조지 리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나)

가지고 있는 연장이 단순한 것들뿐이어서 라다크 사람들이 일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은 긴 편이다. 양털에서 옷을 만드는 모직을 생산하는 일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일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풀 뜯는 양들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손으로 직접 양털을 깎고 그것을 세척하고 실을 잣고 마지막으로 물레를 돌려 천을 만드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해야 한다. 음식을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다. 처음 씨를 뿌려 그것이 음식이 되어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동이 집약되는 과정이다. 그런데도 라다크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무척이나 여유로운 모습이다. 그들은 정말 느긋한 속도로 일을 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여가시간을 즐긴다.

시간을 재는 경우도 느슨하고 여유롭게 잤다. 1분 단위로 시간을 측정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다크 사람들은 “내일 낮에 찾아올게” 혹은 “저녁쯤 찾아올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다크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에 대해 넉넉한 여유를 남겨놓는 것이다. 라다크 사람들의 언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다. (중략)



곡물을 수확하는 동안에도 작업은 오랜 시간 계속된다. 급하지 않고 아주 여유롭게 진행되는 작업이어서 80대 노인들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일을 거든다. 일을 서둘지 않고 자신들의 여유로운 속도에 따라 웃음과 노래를 섞어가며 즐겁게 한다. 일과 놀이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눈여겨볼만한 것은 라다크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는 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8개월 가량의 겨울철에도 음식을 만들고 가축들을 먹이고 물을 날라야 하지만 일의 양은 미미한 정도다. 대부분의 겨울 기간 동안 축제와 파티가 이어진다. 물론 그런 축제나 기념행사들이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있긴 하지만 겨울철에는 특히 더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오래된 미래』-

(다)

아름다운 산책은 우체국에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는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지요  
 그건 발효의 시간이었었습니다  
 가는 편지와 받아볼 편지는  
 우리들 사이에 푸른 강을 흐르게 했고요

그대가 가고 난 뒤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체국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체통을 굳이 빨간색으로 칠한 까닭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겠지요

- 이문재, 「푸른 곰팡이-산책시 1」-

[문제1-1] (가)와 (나)는 현대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글이다. (가)에 나타나는 비판의 요지를 (나)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1-2] (다)에 나오는 ‘산책’의 의미를 (가), (나)의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나)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 사회에서 ‘산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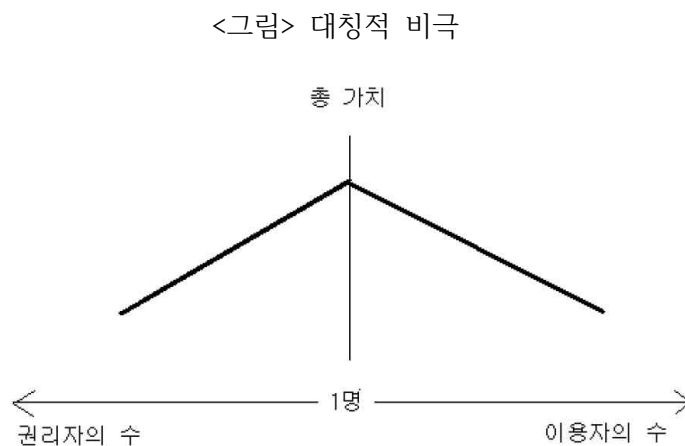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생태학자 하딘(Hardin)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공유지란 종획(enclosure)이 있기 전에 중세 유럽에 흔히 존재했던 토지로서 주민이면 누구나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었던 토지를 말한다. 공유지를 이용하는 주민은 공유지 전체의 최선 이용에는 무관심하고 개인별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여 남용하기 때문에 결국 공유지 전체가 못쓰게 되고 주민은 공멸한다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하딘은 지구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인구 증가를 경계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사용하였으나 공유지의 비극은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어 인구문제 이외의 여러 분야에 원용되어 왔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대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사유화가 중시되고 있다. 사유화란 공유지에 재산권을 설정하고 시장에 맡기는 대책이다. 그러나, 공유지를 사유화하면 하나의 공유지가 여러 권리자에게 분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개별 재산권자는 자신만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다가 전체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법학자 헬러(Heller)는 이러한 파편화의 문제를 주목하고 ‘반(反)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으로 불렀다. 그에 따르면 반공유지의 비극은 너무 많은 권리자가 희소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배제권을 가지고 있어 자원이 과소 사용됨에 따라 발생한다.

헬러의 연구 이후에 ‘대칭적 비극’이라는 새로운 인식도 생겼다. 공유지의 비극은 (대가를 내지 않는)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이고 반공유지의 비극은 권리자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대칭적인 모습이 된다.



-김윤상,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발췌 재구성)-



(나)

중세시대에 라인강은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보호하는 유럽의 큰 무역항로였다. 상선들은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 적당한 통행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13세기에 제국이 약화되면서 독일의 봉건귀족들은 라인강 곳곳에 성을 짓고 각각 통행료를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요금소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자 선박 수송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라인강은 계속 흘렀지만 사공들은 더 이상 라인강 항로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수백채의 성들은 오늘날 불만한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수백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지나치게 많은 통행료는 무역의 쇠퇴를 의미했으므로 봉건귀족 자신들 또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출처: 출제 문제와 관련이 있어 생략함

(다)

일주일간의 해외출장을 마치고 최근 돌아온 김정식씨는 이메일 박스를 열어보고 한숨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도착한 메일이 정확히 387통. 이 중 평소 알던 사람에게서 온 메일은 채 10%도 되지 않았다. 스팸메일을 골라서 지우는 데 반나절을 꼬박 보내야 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기자는 스팸메일 발송을 도와준다는 ‘스팸메일’을 받고 직접 연락해 보았다. 전화를 받은 A씨는 “이메일 추출기 및 발송기 값만 해도 정품은 35만원이지만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시장상황을 전하면서 10만원만 주면 이메일 주소 4000만개에 보너스로 이메일 발송기를 끼워줄 수 있다고 밝혔다.

스팸메일은 마케팅 비용이 워낙 싸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 A씨에게 이메일 주소를 살 경우 주소 한 개당 비용은 0.0025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스팸메일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망 유지비용,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시스템 비용, 수신인의 정신적인 피해 등 손실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2002년 12월 29일 (발췌 재구성)-



(라)

저작권이라는 저자에 대한 최소 보상 권리는 인류에 공헌할 지식의 저장고로 기능함을 원칙으로 삼아 발전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선 지나치게 사적 재산권 행사의 장이 되고 있다. 저작물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마련한, 저작권 내 ‘공정이용’ 혹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도 실제 법적 소송이나 분쟁에서 항상 수세적 위치에 놓여 왔다. 저작권은 새로운 기업의 논리와 결합하면서 그 힘을 배가하는 반면, 기존의 지식을 재창작에 이용하는 이들의 이용권을 위축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법과 기술적 코드로 점점 강해져가는 ‘사유의 저작권’(카피라이트)에 맞서, 새로운 공유의 문화적 흐름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구태의연한 저작권의 잣대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누리꾼들의 새로운 디지털 정보 이용의 방식과 태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처럼 전통적 저작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반대의 시각을 ‘카피레프트’라고 한다. 카피레프트는 “정보는 자유롭길 원하는다”는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자유와 개방성의 디지털 특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저작권의 소유권보다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익을 강조하는 관점을 통칭한다.

-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정보공유 패러다임』 (발췌 재구성)-

[문제2-1] 제시문 (가)는 두 가지의 비극 개념을 설명하였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각각 어떠한 비극의 사례들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두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200)자로 할 것(25점).

[문제2-2] 제시문 (라)는 ‘카피레프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두 가지 비극 중 어떤 가능성을 강조하는 입장인지 설명하고, ‘대칭적 비극’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라.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200)자로 할 것(25점).